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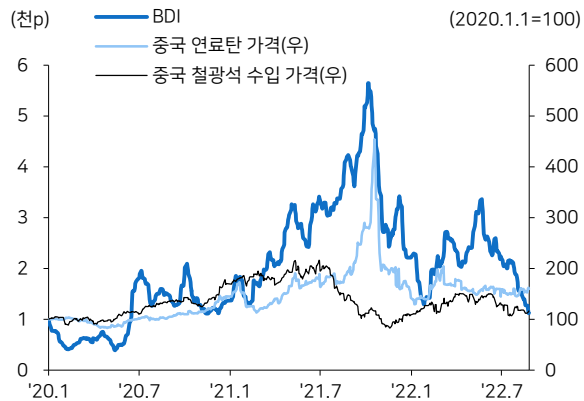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8. 26(금)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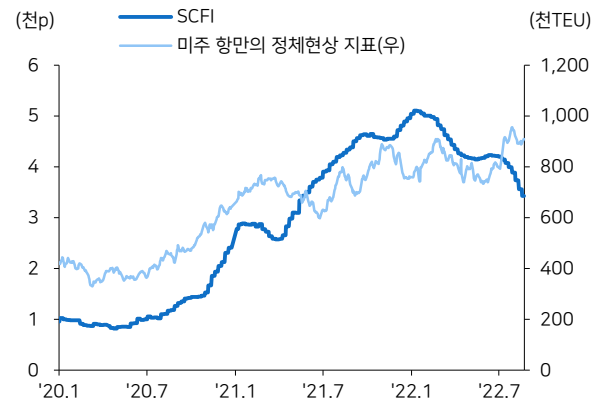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1,123.0p(-9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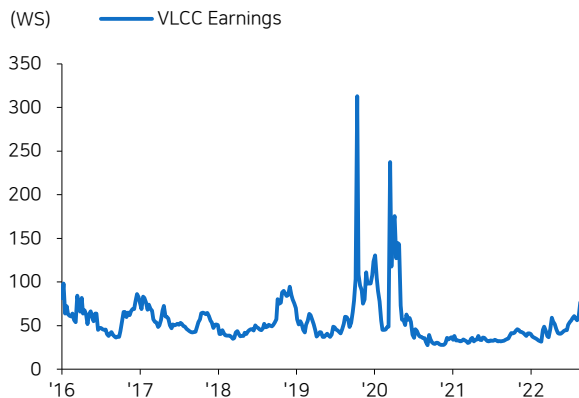
## 컨테이너운임(SCFI)

3,429.8p(-132.8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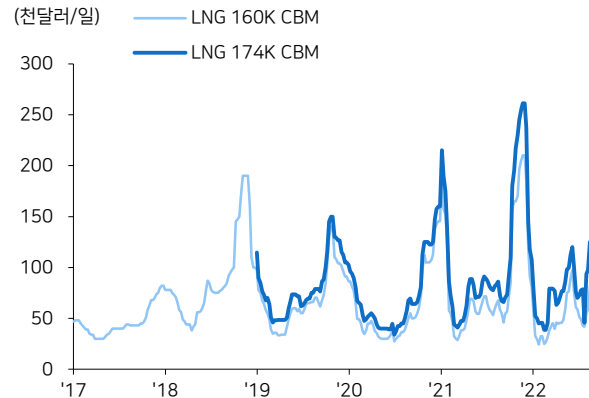


##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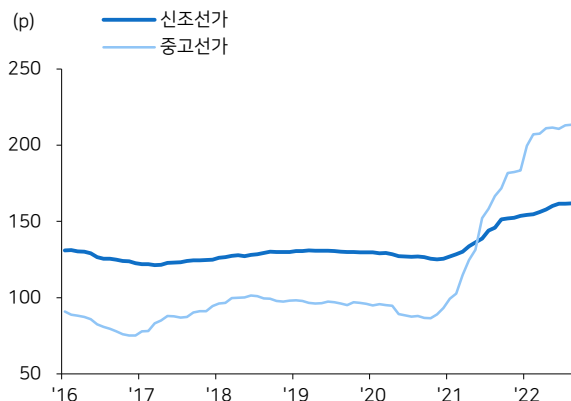
76.8p(+16.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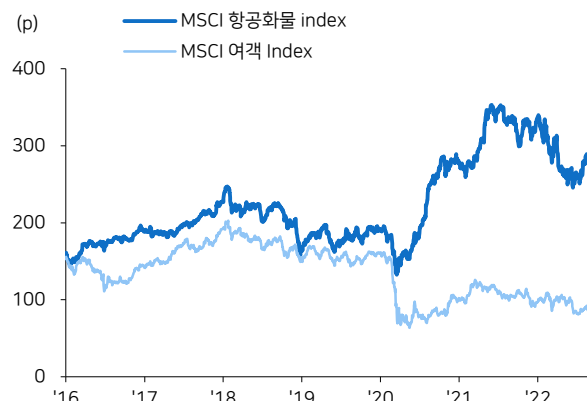
## LNG Spot 운임

81.5p(+22.8p WoW)  
125.0p(+27.5p WoW)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9p(-0.0p WoW)  
211.8p(-1.6p WoW)

## 항공시장 지표

280.6p(+2.6p DoD)  
88.9p(+1.7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VLCC ordering drought comes to an end as Japanese major inks newbuild deal

일본 MOL이 LNG DF VLCC 2척을 중국 조선사에 발주했다고 보도됨. 309,000DWT급으로 2025~26년사이 인도될 예정임. 브로커들은 1.2~1.3억달러에 계약했을 것으로 추정함. VLCC는 2021년 6월 Euronav가 현대삼호중공업에 발주한 1척 이후로는 발주가 없었음. 낮은 운임, 미래연료에 대한 불확실성, 높은 신조선가에 발주가 없었다고 설명함. (Tradewinds)

## HMM linked to expansion of VLCC fleet in rare secondhand deal

HMM이 현대 VLCC 중고선을 SK해운으로부터 9,800만달러에 매입했다고 보도됨. 2019년에 건조된 301,000DWT급 선박으로 VesselsValue는 1억달러로 평가함. (Tradewinds)

## 한국조선해양, '연료 기자재' 사업부 신설... 사업형 지주사 굳힌다

한국조선해양이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맞춰 연료가스 재액화시스템, 연료공급시스템, 공기유통시스템 등 선박용 친환경 기자재의 설계 및 조달을 담당하는 SD사업부를 신설했다고 보도됨. 조선 자회사들이 건조하는 모든 배에 필수적인 연료 및 추진 계통 기자재의 공급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짐. 사업형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출범한 뒤 최초의 자체 사업부임. (조선Biz)

## 영국,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0'...상품 수입도 97% 감소

영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액이 6월 처음으로 제로로 떨어졌다고 보도됨. 에너지 외에도 보드카, 철강, 금 등 모든 상품에도 수입 제한 조치와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과거대비 97% 감소했다고 알려짐. (동아일보)

## Equinor and BP set sights on critical Bay du Nord FPSO contract

노르웨이 Equinor와 영국 BP가 참여하는 94억달러규모 캐나다 동부 Bay du Nord 유전 FPSO FEED계약 입찰이 시작되었다고 보도됨. 한편, 경쟁을 가속화하기 위한 Wood와 Kiewit의 참여가능성도 제기됨. 해당 프로젝트는 2030년이 되기 전 가동될 예정으로 200,000BPD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입찰 결과는 2023년 1분기에 발표, FID는 2024년, 첫 원유 생산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고 알려짐. (Upstream)

## Global investment in LNG infrastructure to reach \$42 billion in 2024

Rystad Energy에 따르면 글로벌 LNG설비 투자액은 2024년 4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도됨. 투자액 급증은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유럽 및 아시아에 대체 수입처 모색에 기인함. 지난 2021년은 약 280억달러가 투입됐는데, 2022년은 270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함. 투자액 증가와 함께 글로벌 가스 수요도 2022년에서 2030년까지 12.5% 상승한 4.5조CBM에 달할 것으로 언급함. LNG 공급도 2030년까지 636MTPA로 두 배 가량 증가, 2034년에는 705MTPA에 달할 것으로 언급함. (Upstream)